

도박·술·밤샘이 없는 '연세의료원 연세 장례식장'

■글/임은정<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정보국>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의 죽음을 맞게 되면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슬픔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크게 흔들리게 된다. 그러나 장례식을 치르려면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다. 음식, 술 대접에 장례용품 준비까지. 일이 많으면 슬픔을 잊을 수는 있겠지만 명복을 빌고 고인과 보낸 날들을 회상하는 진정한 애도의 시간은 갖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일반적인 장례식장의 모습을 한 번 살펴보자. 병원에 마련된 빈소에서 상주와 조문객들이 인사를 나누고 절을 한 다음 별도로 마련된 방이나 천막에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게 된다.

밤샘이라도 하게 되면 조문객들은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 화투 등의 도박판을 펼친다. 술과 도박이 얽히는 과정에서 말싸움이 오가고 술주정을 부리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한다. 어디를 보든지 장례식장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지만 늘 이렇게 해왔다는 이유 때문에 상주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음식은 식당에서만 먹고 음주는 금지 친척 이외는 밤샘 못하게 해

연세의료원 연세 장례식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관행들을 찾아볼 수 없다. 1996년 장례식장을 개원하면

서 도박과 술, 밤샘이 없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영안실을 만든 것이다.

일단 빈소를 상주와 조문객들이 인사를 나누고 절을 하는 추도의 공간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그래서인지 이곳에서는 대화를 하더라도 빈소 밖의 의자나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편화 되어 있다. 또 실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식사는 장례식장에 있는 식당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흔히 보는 구내 식당의 형태인데 상주가 조문객들에게 식권을 지급하면 그것을 가지고 식사를 하면 된다. 식당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외부에서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일체 금지한다.

밤 12시 이후에는 상주와 상주의 친족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문객들은 장례식장에 남아



있지 않도록 권고해서 밤샘으로 인한 번잡함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여기에 탈의실, 매점, 시신 보관실, 조문객 대기실, 현금 인출기 등 각종 시설을 장례식장 내에 모아 놓아 상주와 조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병원 마당에 천막을 설치해 음식을 나르고, 여기저기 쓰레기가 널려있고, 떠들썩한 이야기 소리가 가득한 기존의 번잡한 장례식장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재단에서 장례식장을 직접 관리 바가지 요금, 웃돈 요구 없어

장례용품의 바가지 요금과 지나친 웃돈(팁) 요구는 장례식장에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많은 병원들이 장례식장을 장의

연세의료원
장례식장에는 술과
도박, 밤샘을
찾을 수 없다.
음식도 식당에서만
먹게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를
가장 반기는 사람은
유족들. 음식 접대
등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유족들이 원할 경우 병원에서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곳의 물건도 사용할 수 있다. 또 웃돈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연습 등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장례 비용도 다른 곳보다 저렴한 3백50만원에서 4백50만원 선에서 해결된다고 한다.

연세의료원 장례식장은 한마디로 합리성을 바탕으로 세워진 곳이다. 편리하고 깨끗한 시설, 투명한 가격, 잘 정돈된 장례 절차까지. 그러나 이런 점들이 장례식장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이야기하며 먹고 마시는 '잔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처음에는 상주와 조문객의 반발도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연세 장례식장의 기초와 틀을 잡는 작업을 맡아했던 박두혁 홍보실장은 "장례와 관련된 많은 책을 봤지만 어디에도 음주와 밤샘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며 "술을 마시고 밤을 새고 더군다나 도박까지 하는 것은 잘못된 관례에 불과하다"고 단언한다.

이런 새로운, 혹은 파격적인 장례 문화에 대해 가장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바로 유족들. 며칠 밤을 새가며 조문객들을 대접하고 불편한 시설에서 이것 저것을 챙겨야 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것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 어떤 장례 방식이 더 옳으냐는 쉽게 단정지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동안 경직된 형식과 체면 치레 속에서 불합리한 관례들이 생겨왔던 것만은 사실이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납골당이나 화장이 매장 방법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요즘, 연세의료원 장례식장의 모습은 우리의 장례 문화를 새롭게 검토하는 좋은 사례가 될 만하다. 문의 02-361-8441 ~2. ☎



업자에게 임대해 주고 있는데, 비싼 임대료를 낸 장의업자들은 각종 물품과 서비스의 값을 마구 올려 받아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연세의료원은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장례식장을 임대에서 직영 방식으로 바꾸고 재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나섰다. 우선 관, 수의 등 장례용품을 등급별로 나눈 다음 정액화해서, 값을 깎고 올리고 할 여지를 없애고 물건을 자유